

## May 22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태복음 6:11-12

**주기도문은 앞뒤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분량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쁜 아니라 자자손손을 위한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보혈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혈기의 종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지은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뉘우침과 돌이킬 방법들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큼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 는 죄의 자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 집니다(요일 1:9).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단번에 끊어 내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자백과 진정한 뉘우침, 온전한 위임과 순종이 거듭되면서 결국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참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